

해남 43개 마을에 문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
주민 999명·예술강사 102명 참여
마을 문화예술 활성화 모델 주목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해남, 마을에 문화(文花)를 피우다' 프로그램.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이 주민 주도 마을 문화예술 활성화를 새로운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공모선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남, 마을에 문화(文花)를 피우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마을주민 999명과 102명의 예술강사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마을 문화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구성해 우리 마을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특징이 있다.

마을의 이야기와 설화를 담은 연극, 영화를 제작하고 동화책 만들기, 마을 시집, 마을 역사책 등 정성들인 마을 책자를 만든 마을도 있다. 뉴트로 패션쇼를 개최하는가 하면 마을 합창단과 어르신 밴드를 결성하고, 주민들의 얼굴을 담은 테라코타 부조물, 삶의 이야기를 옮겨 놓은 벽화로 마을에 활력을 더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해남만이 가진

문화예술 자원으로 탄생했다.

군은 '우리마을 문지기 양성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 64명을 마을문화 기획자로 양성하는 한편 10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문화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실시했다.

마을문화사업은 지난 6개월여의 성과를 모아 12월 한달동안 '우리마을 꽃 페스타'를 개최하고 있다. 해남문화예술회관, 면사무소 광장, 마을회관 등 지역별로 거점공간에서 14개 읍면의 페스타가 열리고 있다. 군은 12월 말까지 읍면 페스타에

이어 43개 마을이 다함께 참여하는 해남군 꽃 페스타도 개최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리마을 문화예술 만들기라는 의미있는 작업에 참여해준 주민들과 마을문화 기획자, 예술강사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문화예술의 새로운 모델이 된 것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더욱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시민공청회서 해법 찾는다

28일 시민문화체육센터서 개최

사업자 선정 등에 특히 의혹이 제기되며 뼈저게 렸던 목포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광주일보 2022년 8월 16일자 15면 보도>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8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추진됐던 이 사업은 지역 내 반발에 이어 인접한 무안지역 주민들까지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 공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28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목포해양대학교 김도희 환경·생명공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고 각 분야 전문가와 소각방식별 시공 및 운영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해 소각처리방식(스토커, 열분해) 운영 및 효

율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감소를 위한 대기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을 설명한다.

설명회 후에는 자유토론과 방향적 질의응답 등도 진행된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시민 건강권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해법 모색을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으며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서해해경청, 해양경찰 자체감사 콘테스트 1위

컨설팅 실적·업무 개선효과 우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해양경찰청 주관한 '2022년 자체감사 우수사례 콘테스트' 우수감사 사항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체감사 우수사례 콘테스트는 해양경찰청이 소속 5개 지방청인 서해·중부·남해·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실적과 사전컨설팅

등 자체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회다.

올해 콘테스트에는 내·외부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6개 항목 7개 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고 심도 있게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감사실시 실적, 사전컨설팅 실적, 합동감사 실적, 감사이관 실적, 우수 감사사항 등

이다. 심사지표는 감사계획 대비 감사실시 실적 및 심사세부 기준에 따른 달성율과 국민불편 해소, 현장업무 개선, 우수장비 도입 실적, 합동감사 반 참여 실적 등이다.

서해해경청은 이번 평가에서 감사보고서 구성 체계 및 기본업무 개선효과와 사전컨설팅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포상금 투명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의 내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자체감사 콘테스트 우수감사 사항평가에서 1등을 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갯벌은 탄소 흡수 '블루카본의 보고'

염생식물 56종 서식 확인

무안군이 최근 무안갯벌도립공원(함해만) 내 염생식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해홍나물·나문재·칠면초 등 56종의 염생식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닷가 등 염분이 많은 땅에서 서식하는 염생식물은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해풍이나 조류에 의해 해안선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주요 흡수원으로서 지구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염생식물은 한반도 연안지역에 약 130여종이 서식하며, 무안갯벌에는 기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벼들명아주·유럽점나도나물·창질경이를 포함해 56종이 확인됐다. 도립공원 내 염생식물 군락은 총 14만 3249㎡이며, 칠면초 군락이 7만 953㎡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무안갯벌도립공원은 2008년 12월 갯벌도립공원 1호로 지정돼 보전 관리 되고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대구귀고둥, 알락꼬리마도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럽점나도나물, 창질경이, 갯메미취, 갯방풍.

흰물떼새 등 많은 생물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갯벌 염생식물 56종의 사진 및 특징을 담은 무안갯벌 염생식물 가이드북을 발간해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며 "갯벌도립공원 1호인 무안갯벌이 체계적으로 보호와 관리될 수 있도록 철새·저서동물 등 생물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진도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공공자금 운용혁신...상금 5억원

진도군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재정대상은 재정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행사로 전국 지자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우수 사례를 발표,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169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총 3번의 평가를 치른 후 최종 선정된 10개 기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의 수상을 위한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

군은 세입증대 분야에서 "잡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전문가!"라는 주제로 최종 본선에 진출, 공공자금 운용혁신으로 이자수입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이끈 모범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진도군 대통령상 수상, 상금 5억원

아 대통령상과 시상금 5억원을 수상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수상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공자금 관리 모범대응 사례로 인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열린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광군, 꿀벌 바이러스 예방·응애관리 교육

양봉농가 병해충 방제법 전수

영광군은 지난 14일 양봉 농가 70명을 대상으로 '꿀벌 바이러스 예방 및 응애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바이오비 하성섭 대표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월동 꿀벌 봉군 관리방법 ▲바이러스 및 응애류 방제기술, 특히 국내유입 2년차로 전국적으로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기문응애 현황 및 방제법을 적극 교육했다.

최근 꿀벌이 집단폐사하거나 사라지면서 농가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월동이 들어가는 시

기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벌집을 나간 벌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월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 활동을 하다 폐사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기감이 고조된 양봉농가에 바이러스 예방 및 병해충 방제기술에 대한 이론을 집중 교육하고, 월동봉군의 철저한 관리기술을 지도하여 월동 피해를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월동꿀벌 피해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대체하고 이상 징후 대응을 위해 월동꿀벌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영광=이종수 기자 jylee@kwangju.co.kr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